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스마트 원격물관리 통합솔루션

IoT 이용한 온라인 水자원 관리 ... 亞시장 공략

〈사물인터넷〉

파키스탄 취업자 절반은 농업에 종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0%도 여기서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가 국가 성장 전략의 밑바탕을 1차 산업인 농업에 둘 정도다. 파키스탄 정부와 월드뱅크는 2013년부터 만성인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사업에 나섰다. 사물인터넷(IoT)과 센서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최근 적임자를 찾았다. 국내 중소기업 아이에스테크놀로지였다. 이 회사는 지난 1일 파키스탄 농수로 물관리 솔루션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센서·통신·분석기술 '한 번에' 아이에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스마트 원격물관리 통합솔루션'은 원리는 간단하다. 댐 저수지 강 등의 수리시설에 설치된 관측기가 실시간으로 수위와 유속 강우량 등을 측정한다. 수집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할

파키스탄 농수로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댐·저수지에 관측기 달아 수위·유속 등 실시간 전달

국내 4500곳에 제품 설치 태국에 1000억 수출 추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이에스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했다.

LG전자 출신인 유갑상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초음파 센서 전문가였지만 개발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정보통신 기술을 센서에 접목하는 데 4~5년 걸렸다. 논밭 하천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전파 간섭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천 번 실험했다. 수자원 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유 대표는 "관측 센서, 통신망,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없었다"며 "해



유갑상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스마트 원격물관리 통합솔루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외에서도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태국서 1000억원대 수출 기대 유 대표는 요즘 태국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최대 1000억원대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태국은 수해가 많은 나라다.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다. 태국 정부는

최근까지 독일산 제품을 썼지만 아이에스테크놀로지의 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 대표는 "태국 17개 지역에 2000기의 솔루션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태국 전역의 저수지와 댐 등으로 솔루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제품은 태국 외에 베트남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어나-휴대용무선믹서 (031)281-0969 △이슬-덴트리거폼치약 (053)584-3320 △에코바스-키멜레온LED조명 (041)589-0306 △아이에스테크놀로지-스마트원격물관리통합솔루션 (032)850-2600

남 중국 등에서 쓰인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와 협업하고 있다. 전국 농수로 4500곳에 제품이 깔려 있다. 2012년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표창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유 대표는 "2~3년 안에 수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을 더욱 확장해 글로벌 물관리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육실 소품사업 확장 나선 아이에스동서 "서울·부산 등에 직영매장 신설 취급 품목도 1200개로 늘릴 것"

건설·건자재업체 아이에스동서(대표 권민석·사진)가 육실 소품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육실 자체 브랜드 '이누스'의 직영 매장 수와 취급 제품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18일 "육실 소품을 판매하는 직영 전시장은 서울과 부산 등 인구 밀집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취급 소품 수도 현재 400여개에서 12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는 육실분야를 기반으로 종합 인테리어를 주력 사업의 하나로 키울 방침이다. 가구와 시공서비스, 생활소품을 함께 파는 종합인테리어업체 한센을 벤치마킹하는 이유다. 이누스 직영 매장은 위생도기 타일 등 육실 자체와 육실 리모델링 패키지 상품 '이누스바스'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육실 소품까지 취급하면서 종합 육실인테리어업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육실 분야는 '이누스'도 취급 제품을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다. 이진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체가 잇따라 육실 리모델링 사업에 속속 진출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기존 시장에 진입을 강화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소품을 판매하는 곳은 서울 강남의 직영 매장 단 한 곳으로 아직 소품 사업은 걸음마 단계라 는 게 내부 평가다. 한센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54개, 35개 대형 매장을 가진 것에 비하면 부족한 수적이다. 아이에스동서는 강남 매장의 육실 소품 매출이 꾸준히 늘어 성장 가능성을 보이자 매장 신설에 적극적이다. 부산 등 육실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제품 수도 늘린다. 스위스 스피델라, 스웨덴 아이리산트베르크 등 해외 유명 제품과 국내 제품을 합쳐 400여종을 갖고 있지만 내년까지 3배 이상 취급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영 온라인몰 '이누스'도 취급 제품을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다. 이진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안마의자 1위〉 〈월드프렌즈 계열사〉

바디프렌드, 마블과 손잡고 세계 진출 캡틴아메리카 캐릭터 입힌 안마의자 '허그체어' 출시

안마의자 1위 업체인 바디프렌드(대표 박상현)가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적용한 안마의자를 내놨다. 바디프렌드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한 안마의자를 앞세워 세계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바디프렌드는 월드프렌즈 컴퍼니의 마블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한 콤팩트 안마의자 '허그체어'(사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허그체어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어벤저스의 캐릭터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본체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옷을 연상시키는 색깔 및 디자인을 적용했다. 머리 쿠션에는 각 캐릭터를 상징하는

마스크와 방패를 그려 넣었다.

마사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키 145~173cm의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총 중량 30kg에 크기도 작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가능하다고 바디프렌드는 설명했다. 허그체어는 기능 중심의 안마의자 시장에서 소비자 감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를 접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사지 기능 제공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마의자를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캐릭터와 손잡고 안마의자 사용자 확대에 나섰다.

바디프렌드는 허그체어를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한 마블 히어로 캐릭터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예정이다.

박상현 바디프렌드 대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월드프렌즈와 최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바디프렌드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허그체어를 통해 안마의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까지 롯데백화점 송파점·본점과 영등포점·일산점·노원점·대구점·부산본점 등에서 열리는 허그체어 특별전에서 정가보다 20만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magazine.hankyung.com
№. 1077 | 2016. 7.18 - 24
비즈니스맨의 성공을 위한 주간지
값 4,000원

한경 BUSINESS

COVER STORY

ISA 2라운드 '계좌이동' 전쟁

금융권 수익률 경쟁 가열

각 증권사가 지난 6월부터 일임형 ISA의 수익률을 공시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목석 가리기'에 돌입한 셈이다. 7월 18일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또 다른 기록제다. 검증된 금융사로 거래의 자금이 움직여 가는 ISA 2차전의 시작이다. 누가 차별화된 자산 운용 능력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지,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변곡점 맞은 '만능통장'
계좌이동제 18일 시행 'ISA 판도 바뀐다'

100% 활용법
절세 효과 큰 ELS·ELB·ETF 편입 '필수'

일임형 수익률 '최비'
첫 3개월 수익률 '합격형'
HMC 수익추구형 5.01% '1위'

긴장하는 은행권
수익률 발표 앞두고
자산 운용 전문가 배치 '총력'

개선 방향
'만능 국민통장' 되려면
가입 자격 낮추고 중도 인출 허용해야

INDUSTRY
비즈니스 포커스

경쟁 능력 시험대 오를
구분성 이익률 부회장

TECHNOLOGY
테크 트렌드

'포켓몬이 실린 AR'
새로운 광고시장 열린다

MONEY
머니 인사이트

브렉시트,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엔 '호재'

차트 아이디어
위기에 빛나는 금값, 실질금리가 좌우한다

SPECIAL REPORT

'위기의 백년 기업'
두산그룹 재건 나선 박정원 회장

MANAGEMENT

경영전략 트렌드
'우주로 보내는 편지'
현대차 프리미엄 전략의 비밀

지식 비타민
국회의원 특권이 뭐길래

ECONOPOLITICS

이코노폴리틱스
한국판 '실록 출시' 탄생하나

OFF BUSINESS

GOLF LESSON
PLAZA

'원버튼 글라스 캐니스터'
락앤락 신개념 밀폐용기 출시

주방용품업체 락앤락이 여름철 녹녹해지기 쉬운 식재료의 보관을 도와주는 신개념 밀폐용기 '원버튼 글라스 캐니스터'를 출시했다. 버튼 하나로 공기를 차단해 음식물의 신선함을 유지해 주는 제품으로 습기에 약한 각종 양념이나 잡곡, 견과류, 면류 보관에 좋다. 커피 원두처럼 맛과 향기를 유지해야 하는 식품 보관에도 적합하다. 용량에 따라 가격은 1만~2만원대.

김정은기자 like smile@hankyung.com

광고문의: 02-360-4835 구독문의: 02-360-4841 ※대형 서점·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국내 중소기업 몽골 진출 지원

몽골 상공회의소와 MOU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국내 중소기업의 몽골 진출을 지원한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몽골 상공회의소와 두 나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등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 △양국 기관 직원 파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중진공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몽골 내 한국중소기업전시장 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이사장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한류 분위기를 타고 국내 중소기업의 유망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MOU 체결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몽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